

웅진에너지, 태양전지 잉곳공장 건설

대전공장 1차라인 2008년 본격가동 ... 2012년 생산능력 5000톤 확대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전지 원료 잉곳 생산공장이 대전에 건설됐다.

웅진에너지는 11월28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박성호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급 기관장과 웅진에너지 임직원 등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웅진에너지 1차 생산라인 준공식을 갖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4만6530㎡ 부지에 세워진 웅진에너지 1차 생산라인은 태양전지 원료인 잉곳을 생산하는 곳으로,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에너지는 1차 생산라인 완공과 함께 2007년 말까지 시험가동을 한 뒤 2008년부터 본격 가동(생산능력 1400톤)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웅진에너지는 2012년까지 2193억원을 들여 생산능력 5000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5000억원 수출을 달성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웅진에너지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관내에 4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사가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8>